

박정희 정권 후반기 영화와 섹스 그리고 국가*

- 독일 성교육영화 <헬가>의 수입과 검열과정을 중심으로

조준형**

<차례>

1. 들어가며
2. 1960년대 말, 한국영화계에 섹스가 도착하다
 - 2.1. 한국 '섹스영화'의 탄생: 1968~1971년
 - 2.2. 서구 '섹스혁명'의 한국 수용
 - 2.3. '미풍양속'과 서구 섹스혁명의 충돌과 아노미
3. <헬가>: 성교육영화? 섹스영화?
4. 한국에서 <헬가>의 검열과 상영: 검열서류를 중심으로
 - 4.1. 첫번째 수입과 검열: 1968년
 - 4.2. 두 번째 수입과 검열: 1976~1977년
 - 4.3. 1970년대의 변화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1968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 개봉된 독일의 성교육영화 <헬가: 인간 탄생의 기원 Helga-Vom Werden des menschlichen Lebens>(Erich F. Bender, 1967)의 수입과 검열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두 번의 수입 개봉이 이루어지는 약 10년 동안 성적 표현과 관련한 한국영화계의 지형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기 영화와 섹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호스티스 장르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었고, 성차, 하위주체성, 민족주의, 청년문화, 대중문화 등의 키워드와 연관되었다. 이 글은 그간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와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다른 강조점을 가진다. 이는 연구대상 해외영화의 수입과 검열과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한국영화계와 국가 간의 관계, 혹은 권력

의 작동 방식을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방법론 상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이 글은 첫째, 그 동안 박정희 정권기와 영화의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1968년에서 1971년 사이 '섹스영화' 붐을 재조명하고, 이 섹스영화의 붐이 탄생하고 유지되는데 서구의 섹스혁명(Sexual Revolution)이 중요한 동력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주제를 국내적인 요인으로만 분석해왔던 그간의 연구 경향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당시의 한국영화계, 나아가 한국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부족하나마 박정희 정권기가 권위주의로 진행하던 1960년대 말에 어떻게 '섹스영화'가 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 시기의 변화는 이 글의 핵심 대상인 <헬가>의 첫 번째 수입 검열 당시의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둘째, 영화에서의 성적 표현과 관련하여, 박정희 정권기 국가와 영화생산자의 역연계를 단일하거나 일관된 것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960년대 말은 물론, 유신 이후에도 몇 차례의 관계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은 특히 두 번에 걸친 <헬가>의 검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가의 정책과 목표는 검열의 대략적인 한계선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검열의 과정에서는 검열자와 피검열자 간의 끊임없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이 특정 영화의 검열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헬가>의 두 번째 검열과정을 상세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될 것이다.

주제어 : 가족계획, 검열, 성교육영화, 섹스 영화, 섹스 혁명, 헬가, 호스티스 영화

1. 들어가며

이 글은 1968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 개봉된 독일의 성교육영화 <헬가: 인간 탄생의 기원 Helga-Vom Werden des menschlichen Lebens>(Erich F. Bender, 1967)의 수입과 검열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두 번의 수입 개봉이 이루어지는 약 10년 동안 성적 표현과 관련한 한국영화계의 지형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을 촉발한 중요한 동기는 1968년과 1977년에 한 영화에 대한 두 번의 검열이 있었고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¹⁾, 그리고 이 영화가 단순히 성교육영화가 아니라 1970년대 양적으로

1) 이 영화의 수입과 검열 과정을 담은 서류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되어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사이, 10,000건에 가까운 한국영화와 외화, 문화영화 등에 대한 서류를 보관중인데, 이 자료들은 디지털화를 거쳐 단

* 이 글은 2013년 7월 27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심포지엄 “지워진 한국영화사: 문화영화의 안과 밖”에서 발표한 ‘영화, 섹슈얼리티, 국가: 독일 성교육영화 <헬가>의 수입과 검열을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영상자료원 연구부장

독일 영화계의 다수를 점했던 섹스플로이테이션영화(sexploitation films)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성교육 영화가 어떻게 '섹스영화'의 선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전이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수입되고 검열제도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검열은 왜 엄격해졌는가. 이 기간 영화 속 성적 표현의 관계설정에 변화를 줄만한 어떤 과정이 전개되었던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60~70년대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영화 속 성적 표현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호스티스 영화를 우회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중 상당수는 하층 여성이라는 주제성 혹은 청년문화, 대중문화, 가부장제, 민족주의 등의 키워드와 연관되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기의 문화적 검열과 통제정책의 사례로 개별 작품들이 언급되는 정도였다.²⁾

이 글은 그간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와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다른 강조점을 가진다. 이는 연구대상(해외영화의 수입과 검열)과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한국영화계와 국가 간의

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천착한 연구는 여임동과 유선영의 논문 정도로 보인다. 여임동의 논문은 그 논의의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사이 섹스영화에 주목한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선영의 연구는 보다 복잡하고 풍부한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초 이후 성적 표현을 주되게 담은 영화들의 맥락을 풍부하게 검토하며, 과민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동원체제 박정희 정권 내에서 이 영화들 혹은 이미지들이 가진 선정성과 퇴폐성이 당시 관객들에게 국가체로부터의 월경을 제공하였음을 설득력있게 논증한다. 여임동,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기 「섹스영화」의 등장 배경에 관한 연구, 『영화문화연구』 제11집,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영상이론과, 2009 및 유선영,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유선영이 이 단행본에 원고를 수록하기 이전 학술지에 발표된 같은 글의 제목은 「동원체제의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섹스영화: 데카당스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제15권 제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7년 여름이다.

관계, 혹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당시 신문기사와 잡지 기사를 통한 담론 분석, 검열 서류를 통한 구체적인 검열 과정의 검토 등을 통해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방법론 상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³⁾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첫째, 그 동안 박정희 정권기와 영화의 성적 표현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1968년에서 1971년 사이 '섹스영화' 붐을 재조명하고, 이 붐이 탄생하고 유지되는데 서구의 섹스혁명(Sexual Revolution)이 중요한 동력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이 주제를 국내적인 요인으로만 분석해왔던 그간의 연구 경향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당시의 한국영화계, 나아가 한국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부족하나마 박정희 정권기가 권위주의로 진행하던 1960년대 말에 어떻게 '섹스영화'가 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⁴⁾ 이 시기의 변화는 이 글의 핵심 대상인 <헬가>의 첫 번째 수입 검열 당시의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둘째, 영화에서의 성적 표현과 관련하여, 박정희 정권기 국가와 영화생산자의 역관계를 단일하거나 일관된 것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960년대 말은 물론, 유신 이후에도 몇 차례의 관계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헬가>의 두 번에 걸친 검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가의 정책과 목표는 검열의 대략적인 한계선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검열의 과정에서는 검열자와 피검열자 간의 끊임없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발적이고 상황적인

3) 이와 관련 성적 표현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검열정책과 호스티스 영화를 포함한 개별 영화 수 편의 검열사례를 검열서류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박유희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할」, 『역사비평』 제99호, 역사비평사, 2012년 여름호.

4) 박정희 정권기의 '섹스영화'는 당대 언론 등이 만들어낸 일종의 담론적 산물이다. '섹스영화'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의 표현 수위는 여성 신체의 상반신 혹은 후면 누드나 강도가 높지 않은 베드신 정도에 불과했다.

요인이 특정 영화의 검열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헬가>의 두 번째 검열과정을 상세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될 것이다.

2. 1960년대 말, 한국영화계에 섹스가 도착하다

2.1. 한국 ‘섹스영화’의 탄생: 1968~1971년

한국영화계에서 ‘섹스’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영화텍스트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보인다. 4월혁명 이후 공식적인 검열이 폐지되고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민간 자율로 심의가 수행되자, <연인들>(루이 말, 1959), <폭력교실>(리처드 브룩스, 1955) 등 주로 수입된 외화들을 중심으로 선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1961년 쿠데타 이후 이와 같은 경향은 잠시 주춤했으나, 일본 태양족 영화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청춘영화를 통해 한국영화에 섹스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38(스피드 섹스 스틸⁵⁾)은 청춘영화를 특징짓는 유행어였는데, 당시 기사들은 이 청춘영화를 왜곡되고 국적 없는 청춘상이라 비판하곤 하였다.⁶⁾ 또한 이 시기 <말띠 신부>(김기덕, 1966)와 같은, 섹스를 노골적인 소재로 삼은, 그러나 화면상의 노출은 자제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 영화들 중 일부는 이전과는 다른 수위의 베드신이나 노출 장면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장면 자체보다는 설정과 분위기로 활용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섹스 장면이나 노출이 보다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문예영화를 통해서였다. <갯마을>(김수용, 1965), <물레방아>(이만

희, 1965), <산불>(김수용, 1967) 등의 영화는 인간의 성본능을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을 뿐 아니라, 당대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출신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예영화가 이러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예술성’을 통해 외설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정당화기제가⁷⁾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르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영화는 유현목 감독의 1965년 작 <춘몽>이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음화제조와 반포죄로 감독이 기소되었던 이 영화는 성적 본능과 새도-메조히즘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수위의 노출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⁸⁾

이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1969년은 섹스와 한국영화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섹스가 한국영화의 주류로 부상했고, 그 표현수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들이 성을 다루는 다수의 한국영화들을 묶어 ‘섹스영화’라는 하나의 장르 아닌 장르로 지칭할 정도였다.⁹⁾ 이러한 흐름의 시발점이 된 작품은 1968년 제작되어 1969년 신징에 개봉한 신상옥의 <내시>였다. 이 영화는 서울 개봉관에서 무

7) 이 논문에서 정당화기제라 함은 섹스나 폭력,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장면이나 사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작품 내에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서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영화의 제작목적이나 주제, 장르, 용도 등 작품 외적 요인에 따라 작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문예영화가 예술성이라는 정당화기제를 가졌다면, 반공영화에서는 국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목적, 교육 목적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8) 1967년 3월 1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이 영화에 내린 유죄판결은 한국 최초의 문화적 산물에 대한 음란 사건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영화의 내용 중 일부만이라도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체를 음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소위 ‘부분적 고찰방법’을 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1975년 12월 9일 대법원은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그 작품 중 어느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소위 <반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다.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 2005, 221~225면 참고.

9) 「판치는 섹스영화, 검열방향 변질」, 『동아일보』, 1969.5.15, 「타락한 성감 옷만 벗는다」, 『신아일보』, 1969.6.14 등.

5) 스틸의 철자는 thrill이나,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S라는 키워드로 일컬어졌다. 「스크린」에 담긴 빌러온 청춘상, 『조선일보』, 1964.8.28.

6) 「메아리」, 『한국일보』, 1964.8.30.

려 3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그 해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내시>의 성공에 이어 2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여 1969년 상반기 히트작이 된 박종호 감독의 <벽속의 여자>, 남성간의 동성애를 다룬 것으로 화제가 된 김수용의 <시발점>, 이형표의 <너의 이름은 여자>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의 한 신문은 이 시기 섹스의 물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 나온 것이 현재 검찰에서 말썹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섹스영화들이다. ... 한두 작품이 재미를 보자 한때 멜로드라마에 쓸렸던 총력이 마침내 섹스 면으로 물고를 잡았다. 어차피 「벗기는 영화」를 만들 바에야 「철저히 벗기자」는 돈주머니들의 발언이 그대로 먹혀들어 「스트립티즈 콘테스트」 같은 인상마저 주기에 이르렀다.¹⁰⁾

이 기간 신문기사들 역시 섹스에 경도되었다. 중요한 도화선이 된 것은 196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회 소속 100여명이 불량만화, 에로잡지, 에로 영화 등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그 간행물을 소각하는 화형식을 가진 사건이었다.¹¹⁾ 이러한 서울대 학생들의 캠페인은 여론에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각 신문들은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에로물의 범람 현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고, 문화공보부는 6월 12일 각 신문, 잡지, 출판사 편집책임자를 초치하여 편집방향과 저속외설 간행물 대책을 논의했다.¹²⁾ 이와 함께 검찰은 1969년 7월 1차적으로 월간 대중잡지 및 출판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잡지 편집 관계인 및 출판업자 10명을 구속기소했고, 2차로 <너의 이름은 여자>의 이형표, <내시>의 신상옥, <벽속의 여자>의 박종호 감독 등을 입건하는 동시에 출연배우까지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소설 「서울의 밤」 「영년 구멍과

뱀과의 대화」의 작가 박승훈, 「반노」의 작가 염재만 등도 외설 혐의로 입건 조사하게 된다.¹³⁾

그러나 검찰의 영화와 문학에 대한 음란 혐의 조사가 본격화되는 7월이 되면 기사의 분위기는 반전된다. 해외 영화계의 가십이나 저질영화를 질타하던 기존의 기사 경향과 달리 이 시기 기사들은 대체로 음란과 외설을 논란이 큰 주제로 보고 주의깊게 다루었으며, 비교적 심도 깊은 취재로 해외의 흐름과 음란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영화계나 예술계 인사들은 물론, 기자, 지식인들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검찰 당국의 개입에 문공부, 나아가 대통령까지 나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설물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이호 법무장관에게 『외설은 법률보다 정책으로, 정책 보다는 국민의 도덕 감정으로 자제되어야한다』고 강조, 검찰의 지나친 단속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법무가 『소위 음란성을 띤 영화 잡지 등을 가차 없이 적발 입건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보고하자 신범식 문공장관은 즉각 『소관부처의 검열에 걸려 잘려나간 「필름」도 입건대상이 되는 법 이론이나 검찰이 세운 외설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문공부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했던 것.

박대통령은 이·신 두 장관의 설왕설래를 지켜보다가 『지나친 단속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소관부처의 정책을 침해 않는 선에서 하라(강조는 필자)』고 지시, 검찰의 지나친 집중단속에 은근히 불만을 품어오던 문공부는 이에 힘입어 곧 「소위 외설작품규제를 위한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 공표할 예정이라고¹⁴⁾.

10) 「불황의 악순환, 방화 84편 중 『10만 동원』 이하가 93%」, 『동아일보』, 1969.7.29.

11) 「도색·불량서적 소각, 서울대생 불매서명운동도」, 『대한일보』, 1969.6.10.

12) 「외설물 대책 등 논의, 문공부편집인 회의」, 『한국일보』, 1969.6.12.

13) 「파문 던진 외설단속 그 문제점」, 『조선일보』, 1969.7.20.

14) 「외설단속, 문공부 판정승」, 『서울신문』, 1969.7.21.

이상의 기사는 단편적으로나마 1969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외설과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이 기사에서 박정희가 특별히 진보적인 기본권에 대한 관점을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문공부와 법무부 사이의 정책 충돌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설은 법률보다 정책으로, 정책보다는 국민의 도덕 감정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를 기본권과 연관짓는 주장은, 적어도 외설성이라는 주제가 이 시기까지는 정권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현상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⁵⁾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후, 영화에 대한 사법부의 단속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한국영화 주체들은 섹스를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197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국영화산업은 빠르게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그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TV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당대 영화계의 주요한 고민이었던 시점에서 ‘섹스’가 불황을 타개할 중요한 전략적 돌파구로 부상했던 것이다. 1969년에 시작된 이 붐은 1970년과 1971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대의 한 기사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스노우 섹스」, 「샤워룸 섹스」, 「방갈로 섹스」. 수설자는 무식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아침 조간을 펴들었더니 전단 광고로 여고생이 어느 사나이와 껴안은 채 누워있는 사진이 눈에 띈다.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한 묘한 표정의 여학생이 사나이에겐 안겨있는 사진도 눈에 띈다.¹⁶⁾

15)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언명은 국가가 국민의 심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의 천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이 언명은 이후 강화되는 권위주의 체제의 가부장적 도덕주의, 국가에 의한 대국민 계몽과 선전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16) 「황설수설」, 『동아일보』, 1971.7.2.

2.2. 서구 ‘섹스혁명’의 한국 수용

그렇다면 이러한 ‘섹스영화’의 붐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성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리비도의 힘, 그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에너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V의 등장과 영화 산업 자체의 모순으로 불황에 진입하고 있던 한국영화 산업주체들이 생존을 위해 ‘섹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명칭마저도 ‘저속한’ ‘섹스영화’가 어떻게 박정희 정권기의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 대량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보다 특수하고 역사적인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구의 ‘섹스혁명’(sexual revolution)이 한국사회(영화계)에 미친 영향이다.

1960년대 서구의 섹스혁명은 광범위하게는 “일부일처제적 섹슈얼리티로부터의 전환”으로 규정되며, 이는 섹스에 대한 태도와 성적인 행위의 전환, 섹슈얼리티와 성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¹⁷⁾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초 소비문화의 성장과 피임약의 발명과 같은 의학·테크놀로지의 개발로부터 점화되어 섹스의 자유, 낙태 합법화, 게이와 레즈비언 권리에 대한 보장,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성적 표현물의 생산 및 수용의 자유 등을 촉진했다.¹⁸⁾ 그러나 서구와 미국에서의 섹스혁명은 보다 큰 맥락에서의 혁명(소위 68혁명)이나 민권 및 반전운동 등과 연계되었다. 이는 68혁명 당시 프랑스에서 나온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혁명하는 것이다”와 같은 슬로건, 서독에서의 “쾌락, 섹스와 정치는 하나다”라는 유행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다.¹⁹⁾

17) Jeffery Escoffier, “Introduction”, Jeffrey Escoffier ed., *Sexual Revolution*, Thunder's Mouth Press, 2003, p.12.

18) Dagmar Herzog, *Sexuality in Europe: A Twentieth Century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2011, p.132.

19) op.cit, p.132. 한편 Linda William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70년대 격동의 기간에 약속되거나 갈구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혁명들 중 종교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성적인(sexual) 것이었다. 60년대 섹스혁명은 반전, 반인종주의, 반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에 수용된 이 섹스혁명²⁰은 정치적 급진성과 사회개혁적 전망이 거세된, 혁명의 결과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속하는, 성의 영화적 표현에 국한되었다. 여기서는 1960년대 후반 한국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해외 영화계의 섹스혁명이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섹스혁명'에 대한 언급은 1967년 하반기 미국, 유럽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김진규의 말에서 확인된다. 김진규는 "대체로 구미의 영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섹스신'이 물결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라는 말로 당시 서구 영화의 분위기를 전한다.²⁰ 1967년은 이 글이 주된 서술 대상으로 삼은 독일의 성교육영화 <헬가>가 제작되고,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포르노 서적을 합법화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전면 누드와 실제 성행위를 담은 스웨덴 영화 *I Am Curious*(Vilgot Sjöman)가 제작된 해다.²¹ 영화에서의 섹스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그러나 아직 충분히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은 해였다.

1968년에 넘어오면 성적 표현수위가 높은 서구 영화를 둘러싼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섹스 장면을 삭제한 검열관의 판결을 뒤집은 스웨덴 법원의 판결,²² 1967년 포르노 서적에 대한 금지를 폐지한 덴마크의 동향,²³ 영화를 성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스웨덴의 동

자본주의, 중국적으로는 반가부장적 활동이라는 만연한 대항문화의 더 큰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Linda Williams, *Screening Sex*, Duke University Press, 2008, p.8.

20) '세계일주하고 돌아온 김진규 씨, 구미 영화계에 '섹스'의 물결', 『한국일보』, 1967.12.3.

21) *I Am Curious*는 Vilgot Sjöman이 감독한 스웨덴 영화로, 현대의 문화적, 성적,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답을 얻고자 스톡홀름 일대를 여행하는 Lena라는 한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린다. 레나는 그녀의 친구 Borje와 스톡홀름 일대를 다니며 섹스를 한다. 그리고 이 씬들은 영화에 노골적으로 담겨졌다. James Stuart Olson ed., *The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1960s*, Greenwood Press, 1999, p.239 참고.

22) 「성행위 영화 허가, 스웨덴의 검열관 판시」, 『동아일보』, 1968.3.23.

23) 「출판검열 폐지.. 그 후, 덴마크 늘어났던 외설책 오히려 잘 안팔려」, 『경향신문』,

향²⁴ 섹스 영화를 규제하는 미국영화계의 동향²⁵ 등이 포함된다.

1969년은 서구 영화계에서 '섹스혁명'이 본궤도에 올라선 해였다. 덴마크는 1967년 포르노 서적을 합법화한데 이어 1969년에 포르노 영화까지 합법화하였고,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포르노 박람회를 개최했다. 스웨덴과 서독이 포르노를 합법화한 것은 몇 년 뒤였지만, 1969년에 이미 이 두 국가는 세계 최대의 에로틱 영화 제작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⁶ 제작규범(Production Code)이 1968년에야 철폐된 미국의 경우 그 속도가 다소 뒤졌지만, <미드나잇 카우보이>(존 슬레진저, 1969)가 X등급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I Am Curious*가 수입상영되어 엄청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국의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일부 서구영화의 전문가들은 「섹스」 영화가 영상에 새로운 「에네르기」를 확립했고 현대영화의 시각언어를 한층 풍부하고 매력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요즘 서구영화계에서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섹스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변태적인 「섹스」를 임상학적으로 자세히 보여준다는 「이탈리아」 영화 『성의 미로』가 전세계의 화제가 되었는데 하면 역시 완전 나체의 성행위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쉬든」 영화 『나는 알고 싶어』가 「맨해튼」에서 최근에 개봉되어 영화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편 「덴마크」는 지난 18일 성인용 영화의 검열을 일체 폐지함으로써 성인용 영화는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런던」에서는 요즘 동성애에 빠진 두 여인이 서로의 젖가슴을 애무하

1968.6.19.

24) 「스웨덴의 순결교육, 세 살 때부터 가르쳐」, 『동아일보』, 1968.7.11.

25) 「섹스영화 등 규제, 연소자 입장을 금지」, 『동아일보』, 1968.10.9.

26)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유럽에서의 포르노그래피의 상황에 대해서는 Dagmar Herzog, op.cit, pp.139~145 참고.

는 장면이 40여 초나 계속되는 『「조지」수녀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인기라는 소식이다.

미국 역시 두 여자가 격렬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여고』나 「마조키즘」을 암시하는 『금발에 비친 영상』 등이 지난해에 흥행에 성공한 이후 『솔직하고 대담한 표현』으로 「섹스」 영화 제작방향에 기울고 있다고 전한다.

「프랑스」도 영화검열법이 가벼워짐에 따라 육체 노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엔 「부도덕의 극치」라고까지 평가받았던 『「페루」의 새』라는 영화가 「프랑스」 국내에서까지 상영금지 되었다가 「말로르」 문화상에 의해 풀려 다시 상영되는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는 것.²⁷⁾

그리고 이즈음 섹스혁명이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섹스 영화의 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기사들은 1969년의 「섹스영화」 붐이 「섹스혁명」이라는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방화제작계에도 목하 「섹스」의 물결이 출렁인다. 성의 천국 「스웨덴」의 성문제 외신이 들어오고 「섹스」 영화가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자 한국의 영화제작자들도 불황의 타개책으로 「섹스」를 열심히 다루기 시작했다.²⁸⁾

흥행저조로 고심해온 제작자들은 「프리섹스」의 세계적인 조류와 한국에서도 판을 치고 있는 황색 무드를 방패삼아 섹스영화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²⁹⁾

27) 「영화 속의 「에로티시즘」 어디까지 왔나... 외국 경우 검열 한계 점차 모호, 『대한일보』, 1969.3.29.

28) 「타락한 성감 옷만 벗는다, 불관람운동 속... 출렁이는 섹스영화, 『신아일보』, 1969.6.14.

29) 「불황의 악순환, 방화 84편 중 『10만 동원』 이하가 93%, 『동아일보』, 1969.7.29.

무엇보다 1969년 들어 언론이 서구의 기준과 흐름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국 「섹스영화」에 대한 판단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9년 7월, 검찰에 의한 한국영화에 대한 조사와 몇몇 감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며 음란과 외설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는 과정에서 본격화된다. 이러한 기사는 사실보다보다는 칼럼, 사설, 혹은 전문가의 입을 빈 찬반 의사 표명의 형태를 띤다. 잠깐 당대의 기사들을 몇 가지 인용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역사적으로 성을 추악시하고 은폐하여 온 우리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성이 해방된 서구 사회에서의 한계선보다는 더 엄격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비록 「프리·섹스」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 가정하더라도 급격한 개방은 성생활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서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조는 필자)³⁰⁾

여기에 당국의 신중한 고려가 뒤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퇴폐한 사회풍토를 정화한다는 이유로 예술작품에 강권을 지나치게 발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물론 성도덕의 문란이나 저속한 음란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이 거의 개방되다시피 한 외국의 사조라든지 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생들에게마저 실시되고 있는 이즈음 단순한 성의 묘사가 음란으로 규정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강조는 필자)³¹⁾

「프리·섹스」까지 들고 나오는 외래사조의 물결을 우리 땅에까지 끌어 들여 일찌감치 홍역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선뜻 지지할 용기는 없다. 그러나 1950년 일본의 국민 개인소득액이 오늘의 우리와 동일하던 1백 30 불일 때 그들이 이미 외설법률의 홍역의 과정을 거쳐 세계 제2의 고소득

30) 김기두, 「「스크린」위의 성의 한계 「벽속의 여자」를 보고, 『중앙일보』, 1969.6.14.

31) 「사설」 성 묘사의 단속기준, 『신아일보』, 1969.7.16.

국민이 되었다는 점을 주시하고 싶다.(강조는 필자)···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베드·신」이··· 그 소극적이고 초라한 정사장면들이 외설로 간주되어 그나마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면 한국 영화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³²⁾

검찰의 조사를 전후한 시점에서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응은 노골적인 비판과 적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한국영화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해 다소간 온정적이거나, 적어도 검찰의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의 사례(주로 '프리섹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이 흐름이 옳건 그르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당시 음란물을 단속했던 검사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번 검찰에서 손을 댄 의도는 처벌이 아니고 사회정화와 정신무장에 있음을 밝혀둔다. 외국의 「프리·섹스」 풍조가 우리 것으로 순화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 「프리·섹스」가 세계적 조류라고 할지라도 우리 것으로 순화해서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강조는 필자)³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9년 7월 법무부와 문공부의 충돌, 이어지는 박정희의 발언이 나오며 '섹스영화'의 붐이 당분간 지속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69년의 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서구 섹스문화의 한국적 수용의 흐름은 1970년 이후에는 한결 그 강도가 덜해지며,

서구의 경향은 다시 가십의 대상이 되거나, 부정적인 경향으로 돌아간다. 이와 함께 붐을 이루는 한국 '섹스영화'에 대한 언론의 기초 역시 부정적으로 변했다.

2.3. '미풍양속'과 서구 섹스혁명의 충돌과 아노미

대략 3년간에 걸친 섹스영화 붐은 1971년 12월 6일, 3선에 성공한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종말을 맞게 된다. 1971년 12월 20일 문공부는 국가비상사태 선언 2주를 맞아 출판, 영화, 음반 등 대중문화매체에 대한 정비에 들어가, 안보관계 영화 30편 이상 제작, 검열기준 강화, 영화광고물 정화, 부실영화업체 정비 등의 영화에 대한 정리방안을 발표했다.³⁴⁾ 1972년 영화시책을 통해서는 사회불안, 섹스, 퇴폐풍조, 눈물, 한숨, 패배의식 등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한다.³⁵⁾ 이에 1972년과 73년 사이 노골적인 '섹스영화'의 경향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을 전후한 3년의 '섹스영화' 흐름을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좌우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국가체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1969년 검찰에서 음란 영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 문공부와 법무부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국민의 의식을 통해 제어할 것을 주장한 주체가 박정희였고, 1971년 비상선언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종료한 것도 박정희였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박정희 정권기 영화와 섹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족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검열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생산적인 효과에 대해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작위 가 아닌 부작위의 명령을 통해 효과를 발휘한다. 즉 특정 소재 영화의 생

32) 김수용, 「감독의 입장에서, 검열기준이 깨지는 셈」, 『대한일보』, 1969.7.19.

33) 김유후,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의 단속은 정화에 목적이 있다」, 『대한일보』, 1969.7.19.

34) 「비상선언 2주, 문공부의 대중문화 매체 정리방안」, 『경향신문』, 1971.12.20.

35) 「줄지를 안보영화, 국민총화 담긴 외화 우선 수입, 사회불안, 섹스 등 다룬 작품 철저히 규제」, 『동아일보』, 1972.1.12.

산이 문제가 될 때 애초 그 생산의 동인을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결과적으로 표현방식의 왜곡과 타협을 통한 변형된 창조라는 예기치 않은 생산적인 효과를 유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금지의 명령의 이면에 특정 유형의 경향을 진흥하고 강제하고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의 생산을 촉발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이다.

결국 섹스영화의 생산은 광범위한 잠재적 수요 상태에 존재하고 있던 관객들의 욕망, 이 욕망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주체들의 의지, 그리고 가능한 한계를 넓히고자 끊임없이 시도했던 창작자의 의지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금지를 위한 것이든, 제한이나 타협을 위한 것이든,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애초의 원인행위, 즉 생산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지와 제한의 명령은, 광범위한 일상과 국민의 감성구조까지 지배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라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었다.

포르노그라피는 ‘미풍양속의 한계를 시험하려던 작가와 화가, 판화가들의 의도와 이를 조정하려던 교회 당국 및 세속 경찰의 목적이 부딪혀 서로 밀고 당기는 너저분한 실랑이로부터 발전했다... 포르노그라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작가, 예술가, 판화가들의 진영과 첩자, 경찰, 성직자, 국가관리 진영 사이의 충돌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³⁶⁾

1960년대 말, “미풍양속의 한계를 시험하”는 산업주체와 창작자들의 의지를 추동하고 그 의지의 산물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검열을 약화시킨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는 ‘섹스혁명’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완전히 달라진 높은 성적 표현 수위의 영화들, 변화된 가치관이 가져온 충격은 소위 ‘미풍양속’이라는 전통과

36) 린 헌터 편, 조한욱 역, 『포르노그라피의 발명』, 책세상, 1996, 12~13면.

세계적인 조류 사이의 충돌로 한국사회와 정부, 언론과 지식인들을 끼워 넣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진공상태에서 가치와 기준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일시적으로 아노미상태에 빠졌고, 그 기간 동안 한국식 섹스영화가 탄생하여 불을 이루었다.³⁷⁾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1960년대 초중반 이후 한국이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제3세계 근대화 정책이 노정된 더 큰 범위의 전통과 발전 사이의 딜레마가 압축된 사례이기도 했다.

이 진공상태가 메워지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라는 1세계의 근대적 정치 모델을 거부하고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한국식 근대화를 명시적으로 채택했던 유신정권이 수립될 무렵(이 글의 맥락에서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기점)이다. 이후 일종의 동도서기론적 세계관의 유신정권이 수립되면서 서구의 문화적 근대화, 혹은 근대성은 퇴폐와 저속, 불온의 위험성을 띤 대상이 된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수위는 어떻게 ‘섹스영화’는 지속되었다. 그것은 섹스의 표현이 개방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한 망팔리떼를 정권이 단속으로 손쉽게 막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1970년대 접

37) 이와 같은 서술이 국가 당국이 섹스영화를 검열 없이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검열은 지속되었고, 제한과 삭제는 여전히 이루어졌다. 다만 그 정도가 문제였다. 영화산업 체제를 형식적으로나마 완전히 재편할 수 있었던 당시의 국가권력이 ‘섹스영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다소간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검열의 완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강도 역시 하드코어는커녕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낮은 수준의 성적 표현의 허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헬가>의 1968년의 완화된 검열과 1977년의 엄격한 검열 사이의 차이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8) 김원에 따르면 60년대 후반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국난극복, 국적 있는 교육, 민족문화, 민족주체성 등의 이념으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고 재발명했다. 특히 유신체제는 “근대화에 따라 확산된 서구물질문명과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대치하는 자기긍정적 민족문화, 민족중흥을 위한 민족사의 재해석, 민족영웅의 재탄생 작업으로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는 정신혁명을 통해 대중을 장악하고자 했다.” 김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민족중흥, 내제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사회와 역사』 제93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참고.

어 들며 극심한 불황을 맞기 시작한 영화업계는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권의 검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일 때면 끊임없이 성적 수위가 높은 영화를 제작하고자 시도했다. 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와 시장,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을 해야 했다. 어쩌면 그 타협의 방식이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대로 사회적 진보성을 막는 대신, 성적 표현성을 일정 정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³⁹⁾ 또한 한국식 근대화의 경제적 근간이 결국 수출에 있었던 한국 사회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었던 해외의 ‘섹스혁명’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헬가>: 성교육영화? 섹스영화?

<헬가>는 1967년 서독 보건성 장관 Käte Ströbel의 기획과 독일보건박물관의 후신인 연방보건교육연방센터의 지원에 따라 만들어진 성교육영화였다. 이 영화는 두 개의 3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배급자인 Hanns Eckelkamp와 제작자인 Martin Hellstern은 자료화면들을 재구성해 장편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했다.⁴⁰⁾ 애초 교육적 맥락에서 보여지는 것을 목

39) 유선영은 “권위주의적 동원체제에서의 섹스영화라는 부적절한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혹은 “1970년대 후반의 호스티스영화 혹은 에로영화는 주제의식이 강한 영화들의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어버리는 것과 달리 검열 또는 가위질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으로 1) 소외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 주제의 영화들이 현실의 공적이고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검열주체가 검열객체 쌍방에게 적절한 타협의 여지를 제공했고 2) 고조되는 검열에 대한 영화계와 사회적 불만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비정치적이거나 탈이념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선영, 앞의 논문, 371~372면.

40) Harald Steinwender and Alexander Zahlten, “Exploitation Film from West Germany”, Terri Ginsberg and Andrea Mensch eds., *A Companion to German Cine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12, p.295.

적으로 제작되었던 이 영화는 일반 장편영화로 개봉되었고, 그 해 박스 오피스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독일영화가 되었다. 독일에서 박스 오피스 기록을 깨뜨린 이후 <헬가>는 이후 1~2년 사이에 몇몇 유럽 국가에 수출되어 크게 성공했다. 이탈리아에서 상영될 때, 당시 선도적인 업계지 *Film-Echo/Filmwoche*는 “독일이 이탈리아에 섹스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거창하게 선언했다.⁴¹⁾ 이 영화는 배급된 첫 해 전세계적으로 거의 4천만의 관객을 끌어들였고, <헬가와 마이클 *Helga und Michael*(*Helga and Michael*)>(1968, Erich F. Bender)과 <헬가와 남성-섹스혁명 *Helga und die Männer-Die Sexuelle Revolution*(*Helga and the Men-The Sexual Revolution*)>(1969, Roland Cämmerer)이라는 후속작들을 포함할 때 1억5천만 DM(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현재 유로 가치로 환산할 때 2.5억 유로)를 2년 안에 벌어들였던 히트작이었다.⁴²⁾ 영화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여성 의사는 자신의 딸이 포함된 몇 명의 10대 소녀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때 산부인과에 진찰을 받으러 온 헬가라는 여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때부터 영화는 헬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신 초기 헬가는 성교육과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갖가지 교육에 참가하며, 책을 읽고, 의사의 조언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성에 대한 강의, 마이크로 카메라를 동원한 수정에서부터 임신, 태아의 성장 과정이 자료화면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헬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헬가의 출산 장면은 카메라를 통해 상세히 보여진다.⁴³⁾

41) Tim Bergfelder, “Exotic Thrills and Bedroom Manuals West German B-Film Production in the 1960s”, Randall Halle, Margaret McCarthy eds., *Light Motives: German Popular Film in Perspective*,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03, p.205

42) Harald Steinwender and Alexander Zahlten, op.cit, p.296

43)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영상 버전은 1987년 대영에 의해 제작된 VHS이다. 이 영화에 대한 다수의 참고글은 여주인공 헬가가 영화에서 직접 임신 및 출산한 것으로 상정하지만, 이는 분명치 않다. 헬가가 임신해서 신체가 변화하는 장면

<헬가>는 그 기원적 상태의 난자, 정자, 태아와 같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인간 재생산의 요소들, 출산의 실제적 과정 등에 초마이크로 카메라와 같은 영화 테크놀로지, 애니메이션적인 사진, 빛과 컬러, 대사, 음악과 사운드를 접목시켜 새로운 현실성을 구현하였다. 특히 이 영화는 아마도 세계 영화사에서 거의 최초로 생생한 출산 장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관객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⁴⁴⁾ 이 장면은 1966년 8월 뮌헨의 한 병원에서 촬영되었는데, 이전까지 독일에서 수술실이나 분만실로 카메라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다.⁴⁵⁾⁴⁶⁾

한편 <헬가>의 대중적인 성공 직후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Oswald Kolle은 일련의 섹스 관련 세미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Kolle은 영화를 직접 연출하지는 않았지만, 8편의 영화에 관계하며 대본을 썼고 그 자신이 직접 출연했다. 이들 영화를 통해 그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섹스 저널리스트이자 교육자가 되었다. 그는 첫 작품인 <사랑의 기적 *Das Wunder der Liebe, The Miracle of Love*> (1968, Franz Josef Gottlieb)을 통해 여성의 해방이 여성의 누드 뿐 아니라 남성의 누드를 제시함으로써 보여진다고 주장했

은 분명히 보여지지 않으며, 출산 장면 역시 편집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이 분리되어 제시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는 헬가(역의 여배우 루스 가스만)의 직접 경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4) Uta Schwarz에 의하면 당시 출산장면을 본 관객의 일부는 이 장면의 교육적 효과를 칭찬했고, 일부는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다. 후자의 관객들은 출산 후 태반을 정리하는 과정, 분만실에서의 의학적 도구들과 위협적인 카메라의 위치 등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Uta Schwarz, "Helga(1967): West German Sex Education and the Cinema in the 1960s", Lutz D. H. Sauerteig and Roger Davidson eds., *Shaping Sexual Knowledge: A Cultural History of Sex Educa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Routledge, 2009, p.207.

45) Uta Schwarz, op.cit., pp.204~205.

46) <헬가>의 이러한 스펙타클한 미시적 이미지들은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들이 관여함으로써 가능했다. 자막에서 '마이크로 카메라 사용의 자문역으로 등장하는 Erwin Burcik 박사는 스트루트카르트 인근의 농업 연구센터에서 재직하였는데, 그는 보건교육센터가 제공한 태아의 모형이 아닌 실제 태아를 구해 촬영하였다. 그 외 뮌헨 지역 병원 산부인과 의사 Gerhard Döring 교수, 뮌헨대학 산부인과 의사 발생학자 Fritz Zimmer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공중 보건이라는 정책과 상업적 다큐멘터리의 영화제작과 배급 사이의 상승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ibid., p.206.

다. Kolle은 이후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호모와 바이섹슈얼리티, "자유로운 신체" 혹은 "누드 문화", 포르노그래피의 합법화와 파트너 교환 등의 사회적 수용을 주장했다.⁴⁷⁾ 이 과정을 통해 <헬가>와 Kolle의 다큐멘터리들은 당시 독일의 섹스혁명과 접속하게 된다.

<헬가>와 Kolle의 영화들은 비교적 엄격한 교육적인 원칙을 지킨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헬가>의 형식은 1970년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섹스플로이테이션(sexploitation) 영화의 하위 장르인 '리포트' 영화들에서 활용된다.⁴⁸⁾ 예컨대 리포터가 거리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 지식을 인터뷰하고 묻는 시퀀스는 '리포트'영화의 하위 시리즈인 '여학생 리포트(Schoolgirl Report)' 영화들의 밑그림을 제공했다. 많은 성교육영화들에서처럼, 영화 자막에는 이미지들의 소비를 정당화하고 "과학적인" 가치의 증거를 제공하는 포즈를 취하기 위해 학문적인 자문 리스트가 등장한다. 또한 외국과 목가적 자연이나 풍경의 이미지들을 끼워넣은 몽타주 시퀀스들 역시 존재했다.⁴⁹⁾

<헬가>가 1970년대 내내 양적으로는 독일영화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섹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선구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 원인은 물론 이 영화의 대단한 상업적 성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이라는 소재가 성교육이라는 정당화기제와 만남으로써 그 간 억압되었던 섹스와 누드의 영화적 가시화를 이루어냈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촉발했던 것이다.⁵⁰⁾ 이는 성교육영화와 섹스영화

47) Harald Steinwender and Alexander Zahlten, op.cit., p.297.

48) 리포트 시리즈는 1970년에서 1974년 사이 성교육영화들의 형식을 발전시켜 당시 독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장르의 영화는 1980년까지 거의 60편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이 영화들은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한 Schoolgirl Report 시리즈(13편 제작), Housewives Report 시리즈(6편) 등의 하위 시리즈를 포함하는데 이들 영화는 10대 소녀와 40~50대 남성간의 섹스, 남매간의 섹스, 심지어 강간 장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ibid., pp.298~299.

49) ibid., p.296.

의 간극이 그다지 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 상층 추세에 있는 섹스영화는 대개 두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식의 성교육영화, 두번째가 섹스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강조는 필자) 물론 그 나라 사회사정 때문이었지만 성교육영화는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섹스 다큐멘터리영화는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 덴마크에서 많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성교육영화는 「남편과 아내」 「결혼의 만족」 「결혼ABC」 등이 있는데 이들 영화의 한결같은 특징인 한층도 안 되는 제작비를 들였다는 것과 예외 없이 해설자로서의 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⁵⁰⁾

최근 서유럽 지역의 흥행계를 휩쓸고 있는 아이엠 큐리어스 엘로란 영화는 그 배드신 같은 것이 추잡스럽기 짝이 없어 인간도 역시 동물에 불과하다는 한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더우기 서독 같은 나라는 성생활의 정화란 제목과 성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남녀간의 배드신 같은 것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영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을 정도니 더 말할 것이 없다. (강조는 필자)⁵²⁾

한국에서 '섹스영화'의 붐이 절정에 이르렀던 1970년에 나온 위의 두

50) 이는 어느 면에서 이 시리즈가 자초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로 출산 이후의 육아와 부부생활을 다룬 2편은 과학적 설명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 섹스장면과 노출장면이 활용되었던 전편과 달리, 과학적 외피만 두른채 노출을 상업적으로 활용했으며, 3편에 이르러서는 여주인공이 부부생활을 탈출하여 브라질로 여행하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교육적인 가식조차 포기했기 때문이다. Tim Bergfelder, *International Adventures: German Popular Cinema and European Co-Productions in the 1960s*, Berghahn Books, 2005, p.224.

51) '일확천금의 새장르 섹스영화-명분은 "결혼생활의 권태를 쫓아준다"', 『주간한국』, 제303호, 1970.7.19, 22면. 이 기사는 『뉴스위크』의 기사를 전재 혹은 발췌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52) 「황설수설」, 『동아일보』, 1970.1.15.

기사는 포르노그래피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비범죄화)되지 않았던 서구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섹스를 영화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다큐멘터리 혹은 성교육영화와 섹스영화 사이의 간격이 영화산업 체제 내에서 얼마나 간단히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영화에서의 '섹스혁명' 초기에 성교육영화 혹은 섹스 관련 다큐멘터리들이 영화 속 섹스나 누드 장면을 드러내기 위한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었기(그것이 제작자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교육영화 혹은 다큐멘터리가 섹스영화로 전환되는 논리에 대해 아네트 쿤은 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성병 선전영화를 소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업 영화관에서의 성병 선전 영화의 상영은 ... 영화의 수용이 위험한 문제가 되었다. 영화의 광고와 관객의 구성이 거의 규제될 수 없었으므로 영화의 '의도된' 읽기는 결코 보장될 수가 없었다. 가령 이익에 눈이 어두운 영화관 소유주들이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병 영화의 선정적인 가치를 이용하지 않을 리 없었다. 야한 광고, 특정 연령 이상의 관객만 입장 시키는 것(영화 입장에 이런 강제적 규제가 없던 시절에), 여자 전용 상영과 남자 전용 상영을 번갈아 하는 것 등은 금지된 요소가 있다는 암시를 영화 관객에게 분명히 주었다. 선전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선 영화 관객의 행동을 관찰한 어느 (검열 반대) 논평자가 언급하였듯이 "이 사람들의 대화만 들어 보아도 이들이 뭔가 포르노적인 것을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조는 필자)⁵³⁾

이러한 제작주체가 상정했던 '의도된 읽기'의 실패는 배급주체의 계산의 결과이기도 했다. 1910년대 배급주체 혹은 상영주체들은 성병영화의 '뭔가 포르노적인 것'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대중들의 소비

53) 아네트 쿤, 이형식 옮김, 『이미지의 힘: 영상과 섹슈얼리티』, 동문선, 2001, 154면

속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성교육영화의 섹스영화로의 전환 가능성은 영화의 제작의도나 전반적인 생산맥락이 아니라 영화 속 단편적 이미지들, 즉 여성의 나체나 섹스 장면이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가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1910년대 뿐 아니라 1960년대 후반의 배급이나 상영업자들이라면 누구나 눈치 챌 수 있었다.

그것은, 소위 예술(과학, 혹은 심지어 학문, 교육)과 외설 사이의 모호한 구분선이 끊임없이 교란되며, 예술이 외설의 전조가 되어 왔던 성포현과 예술(혹은 대중 문화 산물)간의 다소간 복잡한 역사적 경험의 관계망 속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순전히 오락적인 혹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성을 착취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산물들과 그것을 예술로 구현해내는 것을 구별해야 함을 과거와 현대의 많은 논자들, 특히 예술 창작자들이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이 구분은 최종 소비단계에서(혹은 '예술의 생산단계에서조차) 종종 흐려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성교육영화, 혹은 성을 통해 여성, 혹은 동성애자를 해방하고자 했던 전복적이고 실험적인 다큐멘타리를 포함한 여러 영화들과 상업적인 '섹스영화'의 구분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 쉽게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주체의 의도는 실제 음란물의 판정 과정에서나 관련 담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당연한 판단이기도 하다. 한국영화 최초의 음화제조죄 유죄를 판정받은 <춘몽>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 과정에서 많은 영화평론가들과 기자들이 예술성과 유현목 감독에 대한 믿음으로 이 영화를 옹호했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며 이는 서구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성교육영화나 진지한 다큐멘터리, 혹은 예술영화가 섹스영화의 원조가 되는 것은 개별 영화의 주체가 계산한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업적인 착취라는 혐의를 벗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기능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가족계획이 도입된 국가의 경우, 이와 같은 성교육영화의 알리바이 기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화의 특정 장면이 가진 위험성은 검열관의 민활한 눈에서 벗어날 수 없기도 했다.

4. 한국에서 <헬가>의 검열과 상영: 검열서류를 중심으로

4.1. 첫번째 수입과 검열: 1968년

한국에서 <헬가>가 수입되어 검열과 상영이 이루어진 것은 1968년이다. 1968년 3월 29일, 대한연합영화사의 대표이사 홍의선은 공보부에 이 영화(번역 제목: 여성의 신비)⁵⁴⁾의 수입추천을 신청한다. 이 수입추천서의 붙임에는 1966년 4월 3일 중앙보건교육연구소가 관련 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이 번역되어 있다.

유아와 어린이에 관한 영화 제작을 링고 필름 회사에게 특별히 제작 해줄 것을 협조 의뢰 합니다.

서독 연방정부에서는 임신 및 육아 양육 가족계획 문제에(강조는 인용자) 관한 영화를 특별히 제작하여 줄 것을 독일(서독) 보건박물관 및 중앙 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왔으므로 서독박물관 및 중앙보건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영화를 링고필름 회사에게 다시 특별히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 합니다...⁵⁵⁾

이 붙임 자료는 서독 연방 정부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텍스트의

54) 이 영화의 공식 수입 제목은 <여성의 신비>였으나, 이 글에서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당시의 공식적인 서류나 기사의 인용구를 제외하고는 <헬가>라는 제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55) 주식회사대한연합영화사,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 1968.3.29.

신뢰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검열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수입자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번역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원문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문의 원문은 “einen Film zum Problem der Schwangerschaft und Säuglingspflege herzustellen”(임신과 육아 문제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로 되어 있고, 가족계획이나 산아제한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건대 수입업체가 당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가족계획’ 사업을 명분으로 수입 및 검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아제한을 주안으로 한 초 마이크로 카메라에 의한 세계 최초의 태내 촬영에 성공한 경이의 장편기록 교육영화. 눈으로 보는 산아제한. 계몽의 수작”이라는 영화의 홍보문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⁵⁶⁾

그러나 이 영화는 실제로는 ‘산아제한을 주안으로 하고 있지 않다. 피임법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산아제한의 당위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설명, 주기법이나 배란제어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콘돔 등 피임도구의 착용법이나 살정제, 링 등 다양한 피임 방식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다. 그것은 당시까지도 독일 사회가 피임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피임약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의사가 독신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⁷⁾ 이는 서독과 같은 1세계의 산아제한, 혹은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가족계획을 빌미로 무분별한 피임약과 피임방식의 국가적 보급, 만연한 음성적 낙태기술이 용인되던 한국과는 달랐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가족계획, 피임, 낙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아제한을 강조한 수입자의 의도는 성공한 것으로

56) 이 홍보 문구는 일본에서 사용된 선전재료의 문구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57) Dagmar Herzog, op.cit, p.137.

58) Uta Schwarz, op.cit, p.206.

보인다. 수입신청을 받은 공보부는 4월 12일 보사부 보건국에 수입추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다. 이에 대해 4월 24일, 보사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가. 내용이 충실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성교육영화로서 당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교육에 유익한 영화로 사료됩니다.
- 나. 정부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한 가정에 알맞은 어린이의 수를 둘 내지 셋으로 계몽 교육하고 있으므로 본 영화에서 어린이 넷 나오는 장면은 삭제(강조는 인용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 다. 기타 영화 장면의 노출 부분은 교육상 필요하오니 삭제 않도록(강조는 인용자) 당부 의견을 참신합니다.⁵⁹⁾

이후 공보부는 1968년 5월 2일 국장회의 석상에서 동 영화를 관람시키고, 5월 7일 공보국장이 재차 관람한 후에 ‘내용이 교육적이고 수입추천이 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 이중의 고려 과정은 공보부가 이 영화가 가지는 일정한 위험성과 파급력(즉 성교육영화가 섹스영화가 될 수 있다는)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고, 신중히 고려했음을 짐작케 한다. 수입신청에 대한 허가 당시 문공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내부 보고 내용을 작성하였다.

1. 본 영화는 산아제한을 주안으로 하여 태아의 발생, 성장, 그리고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수록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서독 정부의 보건위생국의 전면적인 협력과 지도 하에 서독 우파 인터내셔널사가 제작한 특수 촬영에 의한 기록영화임.
2. 1968.4.12. 본 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의견을 보건사회부에 문의하였던 바 4.24일자로 “내용이 충실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성교육영화로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교육에 유익한 영화”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⁶⁰⁾

59) 보건사회부, 「기록영화 수입 추천 의견 문의에 대한 회신」, 1968.4.24.

60) 문화공보부, 「외국문화영화 <여성의 신비> 수입용 회화(外貨) 사용허가 및 수입추천

1968년 8월 초 이 영화가 수입되었고, 학생관람허가 신청과 검열신청이 이루어졌다. 8월 3일에 이루어진 검열에서 당시 검열자들은 모두 이 영화에 제한사항을 붙이지 않았고, 미성년자 관람 가부는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여고생 이상 관람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8월 6일에 있었던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명으로 구성된(7명 참석) 심의회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결정하는 대신, 풀밭에서 남녀가 포옹하며 키스하는 장면 2개치, 목욕탕에서 어머니가 전나체가 되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성교시(임신될 때) 남녀의 자세 도해 전부를 삭제토록 했다.

이상과 같이 보사부의 의견, 검열자들의 검열사항, 미성년자관람심의위원회와 공보부의 최종적인 결정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크게 보아 보사부와 문공부의 차이는 이 영화가 가진 성교육적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이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 줄 일정한 부작용(거칠게 말하자면 섹스영화로의 전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도 고려할 것인가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열을 마친 이 영화는 1968년 8월 8일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개봉했다. 당시 신문의 한 필자는 이 영화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이 영화 「여성의 신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최적의 작품이다. 그렇다고 부모가 가르쳐줄 수 없는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전의 여성 또는 남성은 물론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도 이 영화에서 배울 것이 많다. ... 이 영화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영화는 아니며 참된 기록이다.⁶¹⁾

), 1968.5.9.

61) 「참된 성의 기록 <여성의 신비>」, 『경향신문』, 1968.8.10.

그러나 이 영화의 광고는 ‘참된 기록과는 그 맥락이 다소 달랐다. 예컨대 당시 동아일보 광고의 ‘초마이크로카메라가 잡은 여체 내의 신비’, ‘대담하게 공개되는 여성의 모든 신비’와 같은 문구는 영화업자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했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문화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과 함께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동시 개봉했고⁶²⁾ 하루에 7회를 편성하는 과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이 영화의 수입자가 영화에 대한 상업적 기대치를 반영한다.⁶³⁾

당시 이 영화의 신문광고에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게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 관객 50명에게 피임약인 아나보라를 증정한다는 내용이다.⁶⁴⁾ 1968년은 그간 가족계획 사업의 주요 피임법으로 실시되어온 리페스 루프법의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주된 피임법이 피임약으로 옮겨간 해였고 이 사업에 쓰인 피임약은 스웨덴에서 무상으로 지원되었다.⁶⁵⁾ 한국 웨빙의 이 이벤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판로를 확보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해야 한다는 영화의 내용과 배치되는, 피임약이 영화사의 이벤트로 무상으로 증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1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수십 년간의 운동 끝에도 당시 서구에서는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이상한 혼돈이다. 3세계 국가의 인구 급증으로 세계의 질서에 혼란이 생길까 우려하는 1세계의 우생학적 논리에서 추동된⁶⁶⁾ 한 3세계

62) 문화영화는 당시 프린트를 두 편 내외만 복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말은 동시개봉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곳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5개 지역에서의 동시개봉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63)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흥행이나, 과급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64) 아나보라(anovlar)는 1961년 독일 제약회사 웨빙이 만든 유럽 최초의 먹는 피임약이었고, 그해 유럽 최초로 독일에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에서 처음 시판됐다. 한국에서는 1963년에 처음 수입되었다.

65)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 사업』, 시간여행, 2012, 116면.

66) 당시 미국이 제3세계 인구문제에 개입하는 동인에 대해서는 배은경, 앞의 책, 90~91면 참고.

국가의 전격적인 가족계획 사업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1968년 <헬가>의 검열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77년의 검열에 비해 그 수위가 대단히 낮았다는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검열 삭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산 장면까지도 보여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몇 가지 이유와 배경에서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이 영화가 가지는 비교적 순도 높은 교육적 가치다. 이 영화는 이후에 나오는 노골적인 섹스영화들에 비해(심지어 다른 성교육영화 혹은 성적 다큐멘터리에 비해), 섹스에 대한 묘사가 주의 깊게 다루어졌고 과학과 지식의 전문성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이었다. 둘째, 한국사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가족계획과의 연관성이다. 이 영화가 가족계획 영화로 소개되었고, 그것은 문공부 및 보사부를 통해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이 영화의 선정적 위험성에 우선시 되었을 것이다. 셋째,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당시 중등학교의 성교육 실시와 관계가 있다. 1968년 7월 문교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고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여자 중고교는 그 해 9월의 2학기부터, 남자 중고교는 이듬해인 1969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⁶⁷⁾ 그리고 이 영화는 절묘하게도 8월 8일에 개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의 인용문처럼 이 영화가 가지는 ‘최적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맥락이 이 영화가 재수입된 1977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여전히 가족계획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성교육 교재에 대한 수요는 상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첫번째 검열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음란성’, 혹은 서구의 섹스혁명이 낳은 이 영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감

67) 『중고생에 성교육 여학생은 2학기부터』, 『경향신문』, 1968.7.9.

지할 만큼의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으나, 그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결과로 판단한다. 실제 서구에서도 1968년까지는 성교육영화나 다큐멘타리의 표현수위는 점차 높아졌으나 노골적인 섹스영화로 진화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검열자들로 하여금 이 영화가 가지는 교육적·과학적·국가정책적 가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2. 두 번째 수입과 검열: 1976-1977년

<헬가>는 1976년 7월에 다시 수입되어 1978년 초에 개봉되었다. 수입과 개봉 사이에 1년 6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것은 검열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1976년 7월 27일, 수입사인 태창흥업주식회사(대표 김태수)는 문공부에 이 영화의 수입추천을 신청했고, 8월 6일에 수입 신청이 허가되었다. 이후 이 영화를 정식으로 수입한 태창흥업은 1976년 12월 18일 검열을 신청한다. 이에 통상검열반을 통해 검열한⁶⁸⁾ 문공부는 보사부와 문교부의 관계관 불러 미성년자 관람 여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데 그 결과 보사부 검열관과 문교부 검열관의 의견이 나누어졌다(보사부: 가, 문교부: 불가). <표 1>은 해당 검열 의견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통상검열반 및 문교부/보사부 관계자 검열 의견(76.12.16)⁶⁹⁾

검열자	제한사항	기타의견
중앙정보부 검열관	189 여인 목욕하는 나신 삭제 194 극장선전용 사진 중 여인의 나신에 낙서하는 장면 삭제 317 여인의 나체장면 삭제 592 여인의 목욕탕 나체진과 유방을 타월로 덮는 장면 삭제 732 여인 음부를 크로즈업 시켜 출산장면 삭제	중고생 입장 문제는 내무부와 관계기관의 성교육 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내무부 검열관(경정)	여성나체장면(3컷트) 및 해산 장면 삭제	중학생 이상 관람가

68) 통상검열반과 확대검열반 등 당시의 검열제도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69) 문공부 통상검열반에는 문공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입장은 해당

보사부 검열관(모자 보건관리관)	1) 출산(분만)시의 여성 성기 노출 장면을 cut함이 타당 2) 목욕시 여성과 음부 장면은 cut함이 타당	중고생 이상 및 성인 관람 가능
문교부 검열관 (장학사)	가족계획 영화로 부적합. 출산의 장면은 cut함이 필요함	미성년자 관람에 대한 의견: 불가

<출처> 문화공보부, 「외국영화 검열의견서(여성의 신비)」, 1976.12.16.

검열상의 제한사항이 적고, 미성년자 관람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성표현에 진보적이라 상정할 때, 종합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피력한 곳은 내무부와 보사부였다. 가족계획 추진, 모자 건강을 위한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필요로 하는 보사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다는 것은 짐작 가능한 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사부는 1968년 검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었다. 다만 경찰이 검열관이었던 내무부의 경우가 다소 의외인데, 이는 당시 검열관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다.⁷⁰⁾ 반면 문교부 검열관은 미성년자 관람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의 판정을 내리고 거기에 '가족계획 영화로 부적합하다'는 의견까지 부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교부 검열관의 결정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장편문화영화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상영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이다(영화법시행령 제18조 2항).⁷¹⁾

서류에는 누락되어 있다.

70) 이 글에서는 당시 검열관들의 실명을 제외했지만, 서류상 성명으로 보아 여성으로 보이며, 치안본부 소년담당관으로 판단된다. 검열관의 성별 혹은 개인적인 개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당 검열관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후 확대검열반의 내무부 검열 의견이 미성년자 관람불가로 바뀌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71) 당시 영화법 시행령 18조 2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영화·뉴스영화·텔레비전영화·광고영화 및 예고편 영화의 검열에 있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연소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합격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문화영화 등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규는 1966년 1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18세 미만자의 영화관람의 허용에 대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검열해야 한다"(19조)로 되어 있어 해석이 달라진다. 즉 후자의 규정은 미성년자 관람가에 맞게끔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전자의 법규는 아예 불합격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규정은 1973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이다.

이 검열 사례는 한 영화가 부서별 착안 사항, 남과 여의 성차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공부는 이와 같이 의견이 엇갈리자 1977년 1월 19일, 통상 검열에서 논란이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인 확대검열반을 소집한다. 당시 확대검열반에는 문공부 예술국장, 문예진흥관, 중무담당관, 보도담당관, 방송심의관, 외보담당관 및 중앙정보부 부국장, 내무부 치안본부 제2부장 등이 포함되었고, 앞서의 검열관들과 동일인물인 문교부 장학관, 보사부 모자보건관리관 등이 참고자로 소집되었다. 문예진흥관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1월 21일, 문공부 검열실에서 열렸던 확대검열반의 의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여성의 신비> 확대검열반 검열 의견(77.1.21)

검열위원	제한사항	미성년자관람의견	기타의견
예술국장			
외보담당관		고등학교 이상	
외보담당관		불가	
중무담당관	○ 농도질은 곳은 삭제 ○ 빠질에게 문의하는 부분 삭제	교육영화로서 미성년자(중, 고 이상) 가함	
보도담당관		미성년자 관람불가	
방송심의관	○ 농도질은 키스 장면 삭제	미성년자(중, 고 이상) 가	
치안본부 2부장(대)		미성년자 관람불가	
중앙정보부 심리전국 부국장	○ 출산장면 및 여인의 나체장면은 삭제	문교부, 보사부의 공식적인 자문결과를 근거로 문공부에서 처리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사항 없음
문교부 장학관	○ 가족계획 영화로 부적합함 ○ 출산장면 삭제	미성년자 불가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관리관	○ 출산장면 삭제 ○ 목욕시 음부장면 삭제	미성년자(중, 고 이상) 관람가	

<출처> 「외국문화영화 “여성의 신비” 확대검열 결과」, 1977.1.21.

위의 표에 대해 해당 서류를 작성한 문공부 담당자는 그 결과를 “관람불가 4, 관람가 2, 문교부와 보사부의 의견을 근거로 문공부에서 판단(중앙정보부) 1, 문교부 불가, 보사부 가”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표와 다소

다른 내용인데, 아마도 외보담당관의 엇갈리는 의견을 불가로 통일하고, 서류상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예술국장(확대검열반장)이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⁷²⁾ 각 검열자들은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피력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검열반의 목적이 미성년자 관람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안점이 있었고, 앞서 설명했듯 실제 당시 영화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문화영화가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판정을 받게 되면 검열 자체가 불합격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 제한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열의견에 따라 문공부는 최종적으로 1977년 2월 1일 “미성년자 관람이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영화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의거 불합격”되었음을 통지한다. 이 결과는 이미 상당액의 저작권료(3500달러)와 필름 복사료(6200달러) 및 통관료 등을 지불한 영화사로서는 감수하기 힘든 재정적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태창흥업은 1977년 5월 재심을 신청한다. 이때 태창흥업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권이혁, 국회 문공전문위원 김철, 한글학회 한갑수 박사, 적십자병원 박신근 박사 등 사계 각 전문가들의 추천서를 첨부했고, 대한가족계획협회(회장 양재모)는 별도의 공문으로 문공부에 이 영화를 추천했다.

재심 신청에 따라 문공부는 1977년 11월 11일 확대재검열을 실시하였다. 보사부와 문교부 관계자들은 제외되고, 중앙정보부는 문공부에 위임하고 불석한 채 실시된 문공부 관료 중심의 재검열에서 중학생 이상 관람가 4명, 미성년자 관람가 2명의 의견이 집계되어 결론적으로 국민학생 관람불가의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화면삭제 11개처, 자막삭제 3

72) 통상검열과 확대검열 과정에서 통상검열반 및 확대검열반의 운영주체인 문공부 주무국과의 입장이 서류에서 명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문이다. 이는 문공부 검열담당 라인인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검열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한다.

개처 등 영화 전체가 대폭 삭제되었다. 문공부는 1977년 11월 16일 태창흥업에 이상과 같은 검열 결과와 함께 검열 합격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78년 4월 13일 대한극장과 세기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했다.

<표 3> 1977년과 1968년 <여성의 신비> 검열 제한사항 비교

	1977년	1968년 (O가 삭제 장면)
자막삭제	썸 115: “성행위에 대해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삭제	
	썸 116: “성행위요? 난 그런거 별로...” 삭제	
	썸 437: “남녀가 성교를 삼가야 됩니다.” 삭제	
화면삭제	썸 136: 풀밭에서 남녀가 만나체로 키스하는 장면 삭제	O
	썸 149: 거리에서 남녀 키스장면 삭제	
	썸 187-192: 목욕하는 여인 나체장면 및 목욕 후 까운 입는 장면 삭제	
	썸 194: 극장 선전 사진 중 여인 나체에 낙서하는 장면 삭제	
	썸 269-272: 남자 성기 도해장면 삭제	O
	썸 276-286: 남자 성기 도해장면 삭제	O
	썸 317: 여인 나체 구조 장면 및 여인 음모 장면 삭제	
	썸 576: 누워있는 입산부의 음모 장면 삭제	
	썸 591-593: 목욕탕에서 여인 나체 장면과 타올로 유방 덮는 장면 삭제	O
	썸 731: 헬가 음부에서 출산하는 장면 삭제	
	썸 732-738: 피묻은 태이를 놓은 장면 및 태반이 보이는 장면 삭제	

<출처> 문화공보부, 「외국문화영화 “여성의 신비” 검열 합격», 1968.8.7 및 문화공보부, 「외국 문화영화 “여성의 신비” 재심 결과 통보», 1977.11.14.

4.3. 1970년대의 변화

이상의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7년 문공부는 <헬가>에 대해 1968년과 같은 중학생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검열결과는 상이했다. 총 14개에 이르는 삭제 장면들은 4개에 불과했던 1968년과 크게 비교될 뿐 아니라, 심지어 키스 장면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문공부는 자막까지 삭제함으로써 이 영화가 성교육영화임에도 성행위 혹은 성교의 흔적을 언어에서조차 지우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발생한 것이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1971년 이후 몇 년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1년 12월 문공부가 영화정책을 수정한 후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수립됐다. 1972년 12월 말 한 신문은 한국영화계에서 폭력, 섹스, 멜로물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한다.⁷³⁾ 다른 신문 기사는 외화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검열 통과가 확실하고 선전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전 영화의 리바이벌 수입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한다.⁷⁴⁾ 확실히 1971년까지의 섹스영화 붐은 1972년에 들어 거의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영화산업은 극적인 쇠락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1972년에 눈에 띄게 가시화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통계로도 확인되는 바지만, 내부자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통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한국영화 제작자본의 70~80%를 차지한다고 말해졌던 지방 배급업자의 부도 추산액이 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⁷⁵⁾

이러한 급락의 경향은 1973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영화인들과 언론은 한국영화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검열의 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신상옥은 아시아영화제를 참관하고 온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감독은 이번 영화제에는 9개국이 출품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영화는 액션과 섹스물로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작됐음을 느꼈다고 했다. ... 신감독은 오늘의 관객은 평범하고 짜증이나 는 영화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액션이나 청춘이 불타오르는 충족 표현을 보려는데 있는데 우리 여건은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진출의 돌파구를 열어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⁷⁶⁾

73) '선각본 심사제로 정화 모색, 폭력·섹스·멜로물 자취 감춰', 『경향신문』, 1972.12.12.

74) 「불황 속에 「낮익은 외화」 재수입 붐」, 『동아일보』, 1972.7.15.

75) 「스크린가의 불황, 제작스텝의 15%가 실직」, 『매일경제신문』, 1972.10.12.

76) 「아주영화제를 보고... 신상옥 감독 주장」, 『경향신문』, 1973.5.26.

이상의 신상옥의 주장은 해외 영화의 경향과 담론을 한국영화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이라는 정당화기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같은 기간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가 전세계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상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당시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4년 초 문공부 장관 윤주영은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을 완화하되 연소자 관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 발표한다.⁷⁷⁾ 그래서인지 1974년은 섹스를 주요 테마로 삼은 영화들이 제법 제작되었다. 연방 영화사가 제작하고 조문진 감독이 연출하여 6월에 개봉한 <호기심>은 '다양한 카메라 앵글로 섹스의 본질을 파헤쳤으며⁷⁸⁾, '프리섹스의 풍조 속에 여성의 순결 문제를 다루었다는 <성숙>(정인엽, 1974년 10월 개봉)과 <이름모를 소녀>(김수형, 1974년 11월 개봉) 등이 개봉하기도 했다. 소위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장르의 효시라 불리는 <별들의 고향> 역시 1974년에 개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경향은 1975년 중반에 들어 반전된다. 1975년은 이례적으로 검열을 둘러싼 사고가 많았던 해였다. 우선 1975년 3월, 신상옥의 '신프로덕션'이 홍콩에서 수입한 영화 <소녀(召女)>가, 검열받지 않은 장면을 본 영화에 삽입했다는 이유로 상영중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전례없는 검열 위반 행위로, 문공부는 비교적 강력한 조치로 이에 대응했다.⁷⁹⁾ 그런데 어떤 일인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문공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4월 10일, 비교적 이른 기간에 상영중지 처분이 취소되었다.⁸⁰⁾ 이는 신상옥과 문공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 그 해 5월에 발생한다.

77) 「예술작품 검열 완화키로, 문공부, 금년 영화시책 발표」, 『경향신문』, 1974.2.5.

78) 「「호기심」으로 개제 곧 개봉, 연방영화사 제작 극영화 「밀실」」, 『매일경제신문』, 1974.6.26.

79) 「도중하차... 영화 <소녀>, 가위질 된 필름 삽입」, 『경향신문』, 1975.3.1.

80) 「중지 처분 41일만에 <소녀> 재상영 허가」, 『경향신문』, 1975.4.10.

문화공보부에서 영화의 주관부서인 예술국장, 예술국 영화과의 외화계장, 방화계장, 방화계 주사, 그리고 한국영화계 가장 중요한 제작자이자 수입자였던 신상옥과 김태수가 뇌물수수혐의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선 검열 기준의 완화 등 검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프로덕션(신상옥)과 태창흥업(김태수), 한진흥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실무자들이 구속되었다.⁸¹⁾ 그리고 5월 16일 예술국장이 구속되었다. 그의 혐의는 1974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우수영화선정의 청탁을 받거나 선정에 대한 사례조로 김태수와 신상옥으로부터 각각 2백40만원씩 모두 48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⁸²⁾ 그리고 1975년 7월 4일 신상옥과 김태수가 법정 구속되었다.⁸³⁾ 한국영화 정책과 검열을 좌우하던 주무과와 주무국라인이 붕괴한 사태에 처한 것이다.

그리고 1975년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되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공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공부는 고강도의 정화방안을 내놓게 된다. 1975년 6월 5일, 가요, 음반, 연극, 영화, 쇼 등에서의 퇴폐풍조를 없애기 위한 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중 영화에 대한 내용은 예문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 문공부가 실시하는 검열 규제기준 대폭 강화(여기에는 국가안보나 국민총화 저해 외에 퇴폐풍조, 저질내용에 대한 제재 강화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검열담당관을 보강하여 한번에 그치던 검열제도를 문제작에 대

81) 「영화검열 싸고 금품수수, 문공부 영화과 계장 등 4명 구속」, 『동아일보』, 1975.5.5.
 82) 「문공부 전 예술국장 구속, 우수영화 선정 싸고 업자 돈 받아」, 『동아일보』, 1975.5.17.
 83) 「신상옥·김태수씨 구속, 우수영화 싸고 중퇴」, 『경향신문』, 1975.7.5. 1심에서 예술국장은 2년 6개월, 김태수와 신상옥은 각각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옥과 김태수는 8월 11일 보석으로 출소했다. 「신상옥·김태수씨 보석 허가」, 『동아일보』, 1975.8.11.

해 확대검열을 실시하는 양심제 채택, 외화수입에서 달러의 부정유출을 막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⁸⁴⁾⁸⁵⁾

<헬가>에서 문제가 된 확대검열반이 이때 처음 거론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공부는 1975년 6월 18일 영화검열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6월 23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⁸⁶⁾ 1975년 8월 8일에는 영화진흥공사가 광복 30주년 기념 영화감상회 작품으로 선정한 극영화 <오발탄>이 문공부 검열에서 문제작으로 지적돼 상영이 취소되었다.⁸⁷⁾ 그리고 11월 5일 문공부는 재차 영화검열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 입장을 천명하고, 그 구체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확대검열반 뿐 아니라 실무반(통상검열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⁸⁸⁾ 이러한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영화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기확하고 있던 작품은 물론, 촬영중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방향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⁸⁹⁾

84) 「문공부 공연활동 정화방안 언저리, 사전심의·벌칙강화」, 『경향신문』, 1975.6.6.

85) 1975년은 대중가요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 해 6월 19일, 7월 9일, 9월 29일 3차에 걸쳐 금지곡을 지정했는데, 그 수는 222곡에 달했다. 그 외 11월과 12월에는 261곡을 불건전 외국가요로 지정했다. 김행선은 이 해가 ‘대중가요 학살의 해’였다고 전한다. 그 외 그 해 11월부터 1976년 1월 사이 대대적인 대마초 단속이 진행되었다.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192~197면.

86) 이에 대한 구체 내용은 문화공보부, 「영화검열 제도의 강화」(1975.6.18)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영화과장 책임 하에 담당 사무관 1명, 담당직원 1명, 중앙정보부 1명, 내무부 1명 총 5명으로 기존에 이루어지던 통상검열반 외에 앞서 언급한 확대검열반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확대검열반은 예술국장 책임 하에 중앙정보부 심리전국 부국장, 내무부 치안본부 제2부장, 문공부의 문예진흥관, 중무담당관, 보도담당관, 방송심의관, 외보담당관 등 총 8인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전문인사 약간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확대검열반은 통상검열반에서 결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재검열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이러한 검열 강화 방안에 대해 문공부는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영화검열 강화의 일환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87) 「광복 기념 감상회, 오발탄 상영금지」, 『경향신문』, 1975.8.8.

88) 그 개요는 통상검열반의 반장의 급을 높이고,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2인으로 증원하는 것이었다. 「영화검열 대폭 강화, 이 문공 제도·윤리성에 역점」, 『경향신문』, 1975.11.5.

11월 28일에는 신상옥의 영화사인 신프로덕션의 영화업 허가가 문공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수입영화 <장미와 들개> 예고편에서 검열 통과되지 않은 두 컷이 포함되었다는 이유였다.⁹⁰⁾ 또한 1976년 2월에는 문공부 보고에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박 대통령은 “주체성 없이 외래문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자체의 문화 예술을 좀먹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시기에 우리 것의 문예가 없어지게 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예로 특히 젊은층과 성장하는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퇴폐적인 외국영화의 수입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⁹¹⁾

서구와 다른 ‘한국식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민족문화예술 창달이라는 유신 정권의 문화정책이 영화계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당시 문공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외래문화를 자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그간의 과오를 청산하고 주체적 민족사관에 입각,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이를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로 삼겠다”고 응답한다.⁹²⁾

이 상황이 1976년 7월 <헬가>가 수입되는 시점 이전까지의 흐름이었다. 이 기간 검열의 흐름을 크게 보자면 1971년까지의 완화기, 1971~73년 사이의 강화기, 1974~1975년 사이의 완화기, 1975~1976년의 강화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다.⁹³⁾ 그리고 <헬가>는 강화기에 재수입되었다. 특히 1976년 벽두 대통령의 지시, 즉 ‘퇴폐적인 외국영화 수입’의 단속 방향은

89) 당시 한 기사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앞으로 영화 속에서 키스신조차도 보기 어렵게 됐다”고 쓰고 있다. ‘긴장 속 방향전환 부심’, 『경향신문』, 1975.11.27.

90) 『영화업계 부조리 되서리, 신프로 허가 취소의 충격파』, 『경향신문』, 1975.11.29.

91) 『문공부 보고, 주체성 바탕 민족문화 창달』, 『동아일보』, 1975.2.5.

92) 위의 기사.

93) 물론 이는 상대적인 비교이다. 예컨대 유신정권이 수립되고 긴급조치가 발동되기 시작한 두 번째 완화기가 첫 번째 완화기와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영화의 검열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영화의 검열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수입사인 태창흥업의 대표 김태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태수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자 중 한명이었고 1972년에는 영화제작자협회 회장, 그리고 1973년에는 영화배급협회 회장을 거쳤다. 당시의 영화제작자협회나 영화배급협회가 정부의 권력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던 관변에 가까운 단체였음을 감안한다면, 이 양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던 김태수가 문공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유착관계가 1975년의 뇌물 사건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이와 함께 문공부 예술국의 영화과 라인의 거의 전 직원이 구속당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하나의 사건이 더 있다. 1975년 12월 태창흥업이 수입한 <엔터테인먼트>라는 장편문화영화를 둘러싼 태창흥업과 문공부 사이의 다툼이다. 태창흥업이 수입한 이 영화에 대해 문공부가 문화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태창흥업이 변호사를 동원하여 문공부에 문화영화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등의 항의를 통해 결국 문화영화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무국과인 예술국 영화과는 문공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추궁을 받는 등의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다.⁹⁴⁾

<헬가>의 수입 신청은 이 사건이 해결된 3개월 후인 1976년 7월에, 미성년자 관람불가를 결정한 확대검열은 1977년 1월에 이루어졌다. 저작권료와 필름복사비를 합쳐, 이미 지출된 10,000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손실을 민간 영화사가 감수케 할 결정은 아무리 강경한 분위기 하에서라도 사실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1968년에 중

94) 이 사건은 문화영화의 개념 변화와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의 상세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59호, 한국영화학회, 2014 참고

학생 관람가 판정을 받았고, 이는 서류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공부(정확히는 예술국 영화과)의 결정은 일반적인 검열 의견 이상의 앞서 언급한 태창흥업과 문공부 주무과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개입한 결과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태창흥업은 1977년 5월 초 이 영화의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사는 11월, 즉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지나치게 지연된 이 6개월간 영화사와 문공부 사이에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영화시책과 같은 명시적인 정책전환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977년에 접어들면서 검열은 다시 완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해 후반기 언론들이 앞다투어 영화정책과 검열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김수용의 <야행>(9월 개봉)과 김호선의 <겨울여자>(10월 개봉)와 같은 성인 영화가 하반기 히트작의 반열에 올랐다.⁹⁵⁾ 이러한 완화 분위기에서 비록 크게 삭제된 형태로나마 <헬가>의 상영은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며

앞서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은 1960년대 말 이후 영화에서의 성적 표현과 검열이라는 주제에 대한 시론적인 성격을 띤다. 시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척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기초 조사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95) 이호걸에 따르면 성인영화라 할 수 있는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혹은 호스티스 영화가 가장 많이 생산된 시기가 1977년과 1978년이다. 이 시기에는 <미스 양의 모험>(김웅천, 1977), <O양의 아파트>(변장호, 1978), <나는 77번 아가씨>(박호태, 1978), <꽃순이를 아시나요>(정인엽, 1978), <26×365=0>(노세환, 1979) 등과 같은 다수의 호스티스 영화들이 흥행 순위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호걸, 『1970년대 한국영화』, 『한국영화사공부: 1960-1979』, 한국영상자료원 편, 도서출판 이채, 2004, 96면.

구체적인 검열의 수행 과정, 시기별·국내외 영화별·장르별 검열 기준과 강도, 검열에 대한 국가의 변화하는 강조점, 검열 실무 주체, 실제 삭제 및 축소된 장면 등 무엇 하나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에서나마 특정 영화의 검열자료와 신문기사 등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당대의 흐름을 재구성하고자 한 일종의 중간결과물이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이 글의 잠정적인 시사점들은 향후 보다 폭넓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1968년에서 1971년 사이 한국에서 섹스영화 붐은 국가가 허용한 결과라기보다는 영화산업과 수요자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섹스혁명’이라는 국제적 경향으로 인해 추동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 혹은 사법기관은 갑작스럽게 높아진 영화의 성 표현 수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검열자들로 하여금 <헬가>의 섹스영화로의 전환가능성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가진 교육적·과학적·정책적 가치를 우선하게 했고, 첫 번째 검열의 수위가 낮았던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다.

둘째, 196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영화 성적 표현에 대한 검열은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강화기와 완화기를 반복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기의 검열 혹은 영화 텍스트에 대한 각종 통제경향을 일과압적으로 규정 짓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헬가>가 1968년 4개의 장면의 삭제되고 중학생관람가로 개봉한 것과 1976년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것, 그리고 1977년 검열을 통과했으나 대폭 삭제된 것은 국면적 흐름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 완화기와 강화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1960년대 후반의 완화기는 1970년대의 완화기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표현 수위가 가능했던 것 같다.⁹⁶⁾ 주목할 점

96) 물론 이는 <헬가>만을 놓고 보았을 때의 잠정적 결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 영화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염두에 둘 것은 현재 영상자료원이 서비스하고 있거나 DVD로 출시한 판본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판본들이 당시 검열된 판본이 아니라 검열 전 네거티브 원필름을

은 강화의 계기는 어느 정도 특정지을 수 있으나(유신체제, 긴급조치, 영화시책 등) 완화의 계기는 1969년 박정희의 발언 외에 거의 가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가시적인 강제가 없다면 영화의 성적 표현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당시 국가의 규제는 관객의 수요나 산업계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69년에서 1971년 사이의 '섹스영화 붐이 국가에 의해 중단되는 것, 유신체제 이후 반복적으로 검열이 강화되는 계기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서구의 민주주의 정체나 근대성을 부정하고, 한국식 정체와 근대화를 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삼은 것과 관련된다. 즉 당대 국가와 영화의 성적 표현 간의 관계 변화는 단순히 국가와 영화계(혹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는 서구와 한국의 관계 설정 방식의 변화가 작용한 결과였다.

넷째, 검열은 지속적인 협상과 타협, 심지어 협잡과 공모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검열기준이나 강화와 완화라는 주기가 큰 범위의 한계선을 규정한다면, 구체적인 선은 끊임없이 유동한다. 이 글이 김태수라는 제작자와 문공부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당대의 사건들에 비교적 긴 분량을 할애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헬가>라는 영화텍스트의 교육적 성격, 서독 정부의 후원 하에 만들어진 생산맥락, 중학생 관람가로 결정되었던 이전의 검열 사례, 성교육 교재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검열의 강화기라 할지라도 김태수와 문공부의 관계 설정 여하에 따라서는 1977년 1월에 다소간의 삭제를 거쳐 검열을 통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검열자와 피검열자의 관계가 검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 관계가 검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검열의 우연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이 구체 검열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상의 우발성의 요인을 검열자의 개별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1976년 12월, <헬가>에 대한 통상검열반의 검열 과정에서 보사부와 내무부의 검열관은 1960년대 말 검열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제한사항으로 미성년자 관람가 의견을 피력했고, 중앙정보부 검열관은 비록 제한사항을 상당히 열거하였으나 미성년자 관람가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위임했다. 결국 이 영화가 통상검열반에서 미성년자 관람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데에는 문교부 검열관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열관은 확대재검열에도 참석하여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로 내무부 검열관으로 참여했던 여성 경정은 이 영화의 검열에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확대재검열에 참석한 다른 내무부 검열관은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의견을 냈고, 재심사 과정에는 다시 여성 경정이 참석하여 미성년자 관람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검열은 단순히 국가나 정부부서의 입장이 개인을 통해 제시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검열자들의 개인적 개성, 성별, 가치관이 표출되는 계기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영화 <헬가>(여성의 신비)

문화공보부, 영화 <헬가>(여성의 신비) 수입 및 검열 관련 서류 일체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신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 기사

2. 단행본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린 헌터 편, 조한욱 역,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책세상, 1996.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 사업』, 시간여행, 2012.
 아네트 쿤, 이형식 옮김, 『이미지의 힘: 영상과 섹슈얼리티』, 동문선, 2001.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 2005.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화사공부: 1960-1979』, 도서출판 이체, 2004.
 Dagmar Herzog, *Sexuality in Europe: A Twentieth Century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2011.
 Linda Williams, *Screening Sex*, Duke University Press, 2008.
 James Stuart Olson ed., *The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1960s*, Greenwood Press, 1999.
 Jeffrey Escoffier ed., *Sexual Revolution*, Thunder's Mouth Press, 2003.
 Tim Bergfelder, *International Adventures: German Popular Cinema and European Co-Productions in the 1960s*, Berghahn Books, 2005.

3. 논문

김 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사회와 역사』, 제93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할」, 『역사비평』 제99호, 역사비평사, 2012년 여름호.
 여임동,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기 “섹스영화”의 등장 배경에 관한 연구」, 『영화문화연구』, 제11집,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영상이론과, 2009.
 유선영,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59호, 한국영화학회, 2014.
 Harald Steinwender and Alexander Zahlten, “Sexploitation Film from West Germany”, Terri Ginsberg and Andrea Mensch eds., *A Companion to German Cine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12.
 Tim Bergfelder, “Exotic Thrills and Bedroom Manuals West German B-Film Production in the 1960s”, Randall Halle, Margaret McCarthy eds., *Light Motives: German Popular Film in Perspective*,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03.
 Uta Schwarz, “Helga(1967): West German Sex Education and the Cinema in the 1960s”, Lutz D. H. Sauersteig and Roger Davidson eds., *Shaping Sexual Knowledge: A Cultural History of Sex Educa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Routledge, 2009.

Abstract

Film, Sex, and State of the Late Park Chung-Hee Regime

- With a Focus on the Import and Censorship of the German Sex Education

Film *Helga*

Cho, Jun-hyoung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mport and censorship of the German sex education film *Helga-Vom Werden des menschlichen Lebens*(Erich F. Bender, 1967), which has been imported and released in both 1968 and 1977. The goal is to present a road map of sexual expressio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during the 10-year perio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import and releases of the film.

Research about films and sex during this period have mostly been focused on discussions concerning the hostess genre and been related to gender differences, subalternity, nationalism, youth culture, and pop culture. While this paper cannot be considered unrelated to these prior researchers' discussions, it does have a somewhat different emphasis. This comes not only from the disparity between the research subject (import and censorship of foreign films) and time period but also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nation at the time. It also comes from the differences in methodologies regarding the empirical and microscopic consideration of the behavior of power.

In that way, this paper will, firstly, bring new light to the 'sex film' boom between 1968 and 1971 that has been overlooked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sexuality in film. The paper will attempt to show the

fact that the sexual revolution of the west was an important source for the birth and continuance of the sex film boom. The paper will hopefully help paint a three-dimensional view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s well as Korean society as a whole by adding a new element to the research trend that only analyzes this topic in domestic terms. At the same time, the paper will provide contextual explanation for how the 'sex film' could appear in the late 1960s when the Park Chung-Hee regime was exercising authoritarianism. Also, the changes during this period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 production and first import and censorship of this paper's subject, *Helga*.

Secondly, regarding sexual expression in films, the paper will reveal that the inverse relations between the nation and film manufacturer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cannot be brought forth as exclusive or consistent. In the late 1960s and even after the Yushin period, there were several changes in these relations and thi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two censorship processes of *Helga*.

Thirdly, while the paper shows that a nation's policies and goals do reveal the approximate boundaries of censorship, emphasis was placed on the fact that the censorship process involved endless negotiations between the censor and the subject of censorship. As a result, incidental and situational elements had an important impact on the censorship of certain films. This will be shown through th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econd censorship process of *Helga*.

Key words : Censorship, Family Planning, *Helga*, Hostess Film, Sex Education Film, Sex Film, Sexual Revolution

접수일: 2014년 7월 29일

심사기간: 2014년 8월 9일~8월 24일

게재결정: 2014년 8월 29일